

불자 세상보기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돌보미 17개월 아동 구타 반신마비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다. 가해자들에게 대한 솥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 제정안은 1년 넘게 법사위 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채 서류 중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유아기의 아동들은 전체 인생에 있어

자존감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의지처가 될 부모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된다면 단계적으로 사회의 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에 의해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사회에서 막아주어야 한다. 어릴 때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나도 몰랐다'는 대답을 한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행하는 폭력 내지는 악의적 행동들이 생활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정신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내 자식인데 어떡' 하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도록 하는 정신과 치료와 교육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학대를 일삼고 있는 부모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사

회에서 배려되어야만 하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실직과 빈곤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없어질 것이다. 문제는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에서 문제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 제정과 더불어 학대 받은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설보호 및 임시보호자 체계 등 제도마련이 있어야 한다.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도 물론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 집 등 아동시설에서 진행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에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어린이집은 설립 자격조건이 어렵지 않고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도 까다롭지 않다. 문제가 생겨도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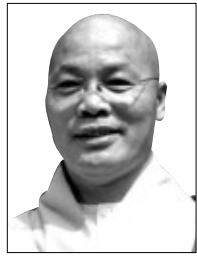
또 제대로 된 어린이 집도 문제가 있는 마한가지다.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안되고 있다. 교육부서 안전사고, 영양관리, 급식, 귀가차량 운전 등 보육교사 몇 명이 다하려면 아무리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이슈화 되면 항상 그 당시에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론과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결국 다음 피해사례가 나타나도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수였다. 이제 아동학대는 피해자 아동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새싹이다. 이러한 새싹이 잘 자라나 건강하고 나무와 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세심히 바라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발언대

불교계 국제구호 발전을 위해서는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피해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전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불교계도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11월 12일 긴급구호단 선발대를 급파하고 상황을 조사한 후 11월 19일 본진을 투입해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불교계 국제구호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포교사·신도회 연계 조직을



헤만 스님
조계종사회국장

짧은 기간 내에 조계종에서 국내외적으로 펼친 구호활동 모습을 보면서 불교계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느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 소식을 듣고 바로 봉사단을 파견시켜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부와 복지담당 종사자들이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교 국제구호단체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활동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전세계 400만 명이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만 자재공덕회처럼 위상을 떨치려면 한국 불교도 스님이 앞장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가자가 중심이 돼 활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신도 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해외 교구본사와 연계해 구호 및 봉사활동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 포교 일선의 전방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1만여 조계종 포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성이 대단하다. 이런 분들과 함께 중앙신도회와 전국 신도여러분 그리고 스님들이 합심해 구호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자재공덕회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국제구호 전문성이 필요하다



묘장 스님
더프라이스 상임이사

이번에 필리핀 태풍 피해가 일어나면서 불교계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종단을 중심으로 구호대를 파견 긴급구호 예산 및 인력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실 NGO단체들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이 나서고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NGO들이 구호활동을 펼친다면 무엇보다 위급상황에서 순조로운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도 국제구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단체들이 홍보를 중요시한 나머지 구호를 뒷전으로 하는 예도 보았다. 또 구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대를 파견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쳐 물건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구호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발대를 파견해 현지의 상황 파악을 충분히 하고 후발대를 보내 체계적인 구호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불교계 국제구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한다. 체계화된 구호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구호단체도 기후변화 고민해야



민정희 사무국장
로터스월드

무엇보다 긴급구호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불교계에서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긴급 재난 지역이 발생하면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개입해 구호물자와 지원금을 배분한다. 한국불교계는 아직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협력기관이 아니다. 실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난 발생을 염두하고 재원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 한국 유수의 개발NGO들도 긴급 현장 구호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한국불교계에는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필리핀을 덮친 '하이옌'과 같은 이상 기후 재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국제구호 단체도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분별한 소비와 개발에 의해 벌어진다.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일은 불교계 국제구호단체가 아니라 힘든 일이지만, 단순하게 구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줄여가는 일을 고민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때 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세계 속에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나눔운동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달력이 한 장 남았다. 연말 분위기가 나기 시작한다. 많은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바쁘고 힘들지만 주변을 따뜻한 시선으로 돌아볼 때다. 불교계에서도 감동김치와 쌀연탄 등 나눔 보시가 본격화됐다. 특히 사찰에서는 김장 윤력이라 해서 한철을 나기 위한 김장담그기를 겸해 관내 복지관 등에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복지단체들도 동절기 생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해 점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급식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실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번 연말은 혹독할 것 같다. 구조조정에 직장을 잃고 작은 가게라도 꾸려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지만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심 거리에는

절망에 빠진 노숙인들이 다시 늘고 있다.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거나 병든 조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연말 분위기가 빠뜨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100만 명 안팎의 독거노인은 겨울밤이 더욱 서럽고 외로운 것이다. 가난과 가정파탄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양로원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봉사단체의 따뜻한 부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이들을 돕는 손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기업도, 개인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다. 작은 온정의 손길이 우리 이웃을 훈훈하게 할 것이다. 연말연시와 겨울을 어떻게 날 것 걱정하는 이웃에게 불교계부터 솔선수범해 손을 힘껏 내민다면 이번 겨울은 어느때보다 따뜻할 것이다. 작은 사랑을 나누면 절망은 줄어들고 기쁨은 커진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작은 관심과 자비행의 실천이 주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방안이다.

여성불자 108인 활용 그리고 동참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선정에는 방송, 정치행정, 법률, 보건 의료, 경제,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계단체, 사회단체, 복지, 자원봉사, 교육연구, 포교신행 1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명망있는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박강자 금호미술관 관장, 팔린트 김영애, 문보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한말선 화계사신도회장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의 위상제고와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격년제로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 108인을 선정해 왔다. 실제 정관계부터 재계, 학계, 예술계 등 다양한 여성 불자들이 이 '108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은 분명 여성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선정된 108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 108인회'가 있지만 바자회와 불교여성개발원 등의 행사 참여, 수련회 등을 제외하면 뚜렷한 활동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고급 인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지만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식상한 속담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6회의 선정을 진행했다면 총 648명이 여성불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108인 선정의 목적이 진정하게 여성불자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라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수련회 개최 등 친목 행사와 더불어 전문적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해원 편집인: 박해월 인쇄인: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중,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